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9

▶ 60회 예고
수시마 일행은 안개가 짙은 새벽에 빠딸리뿌뜨라로 떠난다. 환송식을 생략한 채 조용히 탁실라를 떠난다.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도 함께 간다. 그러나 수시마 부왕은 옛 꾸루국 야무나강 상류에서 친위대 조장에 의해 독살을 당한다.



수시마, 마침내 탁실라를 떠나다

소요를 일으킨 대다수 성민들은 밀이나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다. 상인들은 소요에 가담하지 않았다. 상인들이 나서면 소요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마련이었다. 상인들 중에는 용병과 사병을 거느린 부호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수시마 부왕은 이틀이 지나도 성민들의 소요가 잦아들지 않자 불안해했다. 긴급회의는 수시로 열렸다. 수시마 부왕이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 성민들을 만나 보았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싶지만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하오."

"누군가가 선동한 것 같습니다. 성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더 지켜봤다가 군사를 투입해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건 대장이 원치 않았소."

"부왕님, 이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특사가 군사개입을 반대했다.

"성민들이 왕궁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에는 제가 성민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특사께서 그렇게 해주시오. 대왕님 명을 받았으니 하루 빨리 빠딸리뿌뜨라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초조하오."

특사가 군사개입을 반대한 까닭은 자신이 성민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성민들이 다치지 않아야 했다. 수시마 부왕의 발을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특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사상자가 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특사는 부왕과 성민들 간에 접점을 찾아 타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왕님이시여, 성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사는 이곳에서 2년을 살았고, 그동안 성민들을 접촉해 오면서 나를 보좌했으니 분명 성과가 있을 것 같소."

특사는 친위대 조장과 함께 왕궁을 나섰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친위대 군사가 십여 명 따랐다. 왕궁 정문을 나온 뒤 친위대 조장이 물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성민들을 설득하겠소. 세금을 감면해 주되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겠소."

"성민들이 믿겠습니까?"

"부왕님께서 직접 빠딸리뿌뜨라로 가신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오. 부왕님께서 움직이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특사님 계책은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려는 부왕님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소. 하지만 사정이 바뀌었소. 부왕님의 귀국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오. 대왕님 건강을 걱정하는 부왕님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소."

"부왕님이 가신다면 왕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칼라따까 수상님의 비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지요. 대왕님의 심중은 수시마 부왕님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수시마 부왕님께서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계실 때 모든 왕자님들이 대왕님과 친위대장이 보는 앞에서 수시마 부왕님께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왕님이 가신다면 왕권은 수시마 부왕님께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친위대 조장은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다. 특사도 칼라따까의 편지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수십 명의 왕자들을 불러놓고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것은 왕위를 수시마 부왕에게 물려주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성민들의 소요를 가라앉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시마 부왕이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는 것이오. 또한 왕위이양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시마 부왕을 빠딸리뿌뜨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오. 자, 그대는 어찌했으면 좋겠소?"

칼라따까의 심복인 특사와 친위대 조장은 진퇴양란에 빠지고 말았다. 수시마 부왕이 빠딸리뿌뜨라로 간다면 왕권은 아쇼까 부왕에게서 아주 멀어져버릴 터였다. 수시마 부왕을 옹립하려는 친위대장과 수시마 부왕비가 모든 왕자들과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빈두사라왕의 마음이 오래 전부터 수시마 부왕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특사는 동문 쪽으로 갔다. 상인들 저택들이 있는 언덕을 지나면 농민들이 모여 사는 거리가 나왔다. 상인들은 정원이 딸린 붉은 벽돌집에서 거주했고, 농민들은 흙벽돌이나 갈대를 얹힌 움막 같은 곳에서 옹색하게 살았다. 광장은 남문과 동문이 보이는 지점에 있었다. 광장에는 농민 수십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농민들은 특사에게 호의적이었다. 성민 유지가 특사를 맞아주었다. 특사와 그는 밤에 자주 만나 술을 마시곤 했던 친구나 다름없었다.

"특사시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부왕님께서 빼딸리뿌뜨라 왕궁으로 가시어 대왕님의 허락을 받아오시겠다고 하오."

"감면을 해주신다는 말이오?"

"그렇소. 다만 빠딸리뿌뜨라 왕궁으로 가셨다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그거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소."

성민 유지는 부왕이 세금감면을 위해 먼 길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감격한 듯 농민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여러분, 부왕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부왕님께서 대왕님의 허락을 받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와아와아!" 성민들이 북을 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특사는 벌레 씹은 얼굴을 했다. 성민 유지가 특사를 보고 말했다. "특사님은 기쁘지 않소?"

"그대는 웃지만 나는 울고 있소."

"무슨 말씀이오?"

특사는 끝내 농민 출신인 성민 유지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오히려 성민 유지에게 투덜거렸다.

"나는 성민들이 농사를 잘 지었을 때 세금을 더 내겠다고 주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아마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오."

그래도 특사는 소요가 끝날 것 같아서 안도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농민들이 고맙기조차 했다. 관계가 껄끄러운 상인들과 부딪쳤다면 소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알 수 없었다. 상인들은 순진한 농민들에 비해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했다. 그러니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힘들었다. 상인수장은 특사보다는 부왕만 상대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성 밖으로 추방할 수도 없는 무리가 상인집단이었다.

그날 오후, 특사는 왕궁으로 돌아와 수시마 부왕에게 보고했다. "부왕님, 성민 유지를 만나 집회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특사가 나서니 바로 해결되었소. 그동안 성민들과 유대해 왔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소."

"부왕님, 과찬이십니다."

"그럼 나는 내일 바로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하겠소."



"예, 친위대 조장이 부왕님을 호위할 것입니다."

"친위대 조장이 나를 호위한다고 생각하니 믿음이 가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친위대 조장이 특사의 관사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탁자에 마주앉았다. 하인이 뜨거운 짜이 두 잔을 가져왔다. 특사가 짜이를 마시지 않고 말했다.

"부왕님께서 내일 출발하니 준비하시오."

"결국 부왕님을 호위하는군요. 칼라따까 수상님은 저의 은인인데 뵐 면목이 없습니다."

"부왕님이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나도 난감하기만 하오."

"특사님, 계책이 없겠습니까?"

"부왕님께서 가신다는데 내가 어찌 막겠소. 며칠 동안은 소요를 핑계로 막았지만 이젠 이도 저도 못하게 됐소.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소. 궁하면 통하는 법인데 말이오." 그러나 특사는 좀 전에 생각해 둔 계책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친위대 조장이 특사의 마음을 간파하고는 말했다.

"궁하면 통하신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들었소?"

"특사님,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칼라따까 수상님을 위해서는 무슨 위험한 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정말이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계책을 쓸 수밖에 없소."

특사의 얼굴이 기름불 불빛에 번들거렸다. 마치 짜이를 마신 것이 아니라 독주를 들이킨 것 같은 얼굴이었다. 친위대 조장은 특사의 얼굴을 보고는 움찔했다.

"최악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특사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독살하는 것이오."

"저더러 부왕님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부왕님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이 걸렸소."

친위대 조장이 물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입성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쇼까 부왕님을 옹립하려고 했던 우리 모두는 친위대장 손으로 처형될 것이오. 칼라따까 수상님, 라다굽따 제관님, 나, 친위대 조장까지."

"반대로 부왕님께서 입성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쇼까 부왕님께서는 왕위를 잇고 그대는 친위대장이 될 것이오. 수시마 부왕님께 충성맹세를 했던 왕자님들도 모두 다 지옥 같은 우물감옥에 던져져 죽을 것이오."

그제야 친위대 조장이 결심했다.

"부왕님을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마우리아왕국을 위해서 제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행운을 비오." 특사가 탁자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거무죽죽한 빛깔로 변색한 조그만 은갑이었다. 장미 장식이 새겨진 은갑에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조금만 삼켜도 살아남지 못하는 독약이오."

"특사님, 빠딸리뿌뜨라에 가서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부왕님이 오시는 도중에 음식을 드시다가 급사했다고 보고하시오. 칼라따까 수상님이 뒷일을 봐줄 터이니 문책당할 일은 없을 것이오."

은갑을 받아든 친위대 조장은 일어서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살기가 온몸을 스치는 것 같아 몸서리쳤다. 특사가 친위대 조장 등 뒤에서 말했다. "부왕님을 마지막까지 잘 모시시오. 마음이 아프지만 마우리아왕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소. 장례는 예를 갖추어 정중히 지내주시오." 밖은 동굴 속처럼 컴컴했다. 초저녁에 잠깐 나타났던 초승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친위대 조장은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막사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어디선가 개들이 어둠을 물어뜯듯 컹컹 짖어댔다.

다음날 새벽, 수시마 부왕과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는 탁실라 성을 조용히 벗어났다. 수시마 부왕의 뜻에 따라 일부러 행사를 생략했다. 평소와 달랐다. 부왕이 장도에 오를 때는 악대가 도열해서 연주하고 성민들이 모두 나와서 환송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의 기병들은 수시마 부왕이 탄 말을 앞뒤에서 호위했다. 수시마 부왕 일행은 새벽안개 저편으로 사라졌다.〈계속〉

불기 2566년 건학76주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인격 완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이 사 초격스님 성일스님 도일스님 성진스님 신용철 박민영 윤덕호
감 사 혜공스님 손오제
광동고등학교 교장 김일동
의정부광동고 교장 김중철
광 동 중 학 교 교장 정홍권
법 인 사 무 국 장 정용수
수 석 교 법 사 권준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법인사무국 : 031-572-0559
설립자 윤허 대종사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